

속표지

2023 한국무용학회 KSDS 연구역량 워크숍

일시 2023. 05. 20 (토) AM 10:00

장소 세종대학교 이당관 205호



Session 1 _ 10:00 - 12:00

무용학 양적연구 방법
김 영 미 교수님
(서원대학교 교수)



Session 2 _ 13:00 - 15:00

문질빈빈 : 질적 연구의 본질적 이해와 실천
조 용 환 교수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최



한국무용학회

목 차

Session 1

무용학 양적연구 방법

김영미 교수님 (서원대학교) 2

Session 2

문질彬彬(文質彬彬): 질적 연구의 본질적 이해와 실천

조용환 명예교수님 (서울대학교) 19

2023 한국무용학회 KSDS 연구역량 워크숍

■ Session 1 ■

무용학 양적연구 방법

김영미 교수님

(서원대학교)

무용학 양적연구 방법

김영미 교수님 (서원대학교)

제 1 장. 과학의 이해

1. 과학의 정의

Research is a systematic attempt to provide answers to questions

과학 : 과학은 현상에 내재하고 있는 진리를 객관적인 접근 방식에 의해서 규명하는 과정이다. 모든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과학의 대상이 될 수가 있으므로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 그 자체 보다는 진리의 규명을 위해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방법론이다.

2. 과학적 방법

- 1) 연구의 대상을 체계적으로 관찰, 검증, 분류, 해석할 때 가장 타당하게 접근해 가는 방법
- 2) 보편화의 수준: Lundberg 의 분류
 - 1단계: 닥치는 대로 하는 관찰
 - 2단계: 광범위한 영역 또는 대상의 체계적 탐구
 - 3단계: 고립적인 가설의 실험 또는 통계적 방법에 의한 검증
 - 4단계: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이론에 의해 수행되는 실험, 또는 자료수집

3. 현대의 과학적 논문(인문.사회과학 논문 포함)의 다섯 가지 요건

- 1) 정확성: 내용이나 방법, 각주, 참고문헌 기술, 그리고 점 하나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정확해야 한다.
- 2) 객관성: 사실과 증거(data)에 입각하여 주관적인 아닌 객관적인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
- 3) 불편성(不偏性): 연구자의 편견이나 감정, 선입견이 개입되어서는 안되며, 연구와 관련된 것 갈린 주장이나 학설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 4) 검증성(檢證性): 논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필요할 경우 누구든지 이를 재시도 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과학은 '넓은 의미로서의 재현(再現) 가능한 현상을 자연계에서 추출하여 이것을 통계적으로 규명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 5) 평이성(平易性): 논문은 읽기 쉽게 내용이 평이해야 하며, 서술이 간결 명료하고 어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제 2 장. 무용학 연구의 형태와 절차

1. 학술연구분야 분류표

대분류명 > 중분류명 > 소분류명 > 세분류명

- 예술체육학 > 예술일반 > 예술비평 > 무용비평
- 예술체육학 > 무용 > 무용철학, 무용미학, 무용사, 무용비평, 무용인류학, 무용보, 움직임분석, 무용교육, 무용치료, 무용심리학, 무용사회학, 무용기능학, 안무, 기타무용

2. 무용학의 분류(학문의 기능에 의한 분류)



2. 연구의 종류

- 1) 역사와 관련된 연구(historical research): 과거의 기록을 발굴 정리하여, 그 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고자 하는 연구, 현재 및 미래의 현상을 해석하는데 유력한 단서 제공.
- 2) 임상(clinical) 또는 관찰 연구(observational research):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임상적 방법이나 관찰을 통해 그 공통적 현상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 사회현상의 경우 다양한 통계 방법 동원.
- 3) 실험 연구(experimental research): 일정한 조건 하에서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

3. 과학적 실험 설계의 기본 요소

과학적 연구 실험설계의 경우 세 가지 기본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1)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설정이다. 실험설계에서 실험대상에 부여되는 영향이나 자극이 대체로 독립변인(independent variables)이 되며, 그 영향이나 자극에 대한 결과나 반응이 종속변인(dependent variables)이 된다.
- 2) 실험집단(experimental group)과 통제집단(control group)의 설정이다. 연구의 조사대상이 실험집단이고, 실험집단과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규정하나 실험을 위한 처치(treatment)나 자극을 주지 않는 집단이 통제집단이다. 실험에서 주어진 처치에 의한 변화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3) 사전검사(pre-testing)와 사후검사(post-testing)이다. 사전검사는 실험처치를 하기 전에 실험대상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며, 사후검사는 실험처치를 행한 후 실험대상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4. 연구 상황에 의한 분류

- 1) 표본조사 (sample survey)
- 2) 현지조사 (field study)
- 3) 현지실험 (field experiment)
- 4) 실험실 내 실험 (laboratory experiment)

5.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차이

양 적 연 구	질 적 연 구
1. 양적 방법	1. 질적 방법
2. 논리실증주의적 입장	2. 현상학적 입장
3. 강제된 측정과 통제된 측정을 이용	3. 자연주의적·비통제적 관찰을 이용
4. 객관적임	4. 주관적임
5. 외부자(outsider)의 시각	5. 내부자(insider)의 시각
6. 결과지향적	6. 과정지향적
7. 일반화 할 수 있음: 복수 사례 연구	7. 일반화 할 수 없음: 단일 사례 연구
8. 특정적(particularistic)	8. 총체론적(holistic)

제 3 장. 무용학 연구 시작하기

1. 논문의 요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독창성, 혹은 창의성. 독창성이란 연구의 주제. 방법. 결과. 결과에 대한 해석의 새로움을 의미. 따라서 다음과 같은 논문은 비평이나 평가가 포함되었더라도 논문이라고 할 수 없다.

- 1) 남의 저술을 요약한 것
- 2) 남의 견해나 주장을 비판없이 옮겨 놓은 것
- 3) 여기 저기서 인용하여 교묘하게 꾸며놓은 것
- 4) 입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견해가 담긴 것
- 5) 간행물이든, 미간행물이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옮긴 것

2. 연구의 절차

- 1) 문제의 정립
- 2) 가설 및 개념 형성
- 3) 조사연구의 설계
- 4) 자료 수집
- 5) 조사 결과의 정리, 분석 및 해석

3. 연구 시의 고려 사항

- 1) 사회적 문제
- 2) 재정적 문제
- 3) 인적 문제
- 4) 시간적 문제

4. 주제 선정 요인

1) 실용적 관심

- ① 새로운 정책 수립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초 자료를 획득할 경우
- ② 일정한 정책이나 사회적 행동의 결과 또는 효과를 평가할 경우
- ③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를 결정할 경우
- ④ 어떤 일의 미래를 예견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학문적 관심

- ① 별로 연구되어 있지 않은 부문의 주제를 연구할 경우
- ② 어느 정도 연구되어 있으나 좀 더 특수한 조건 하에서 보다 정확히 탐구 할 경우
- ③ 체계화된 이론에서 추출된 특정한 가설을 검증할 경우

제 4 장. 주제선정과 문헌 분석

1. 논문 제목이 갖추어야 할 요건

- 1) 구체성과 간결성
- 2) 핵심 용어 사용
- 3) 지나친 전문용어 금지
- 4) 가치 중립적 용어 사용
- 5) -에 관한 연구 라는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음

2. 선행연구 읽기

- 1) 전공 학술지의 내용을 따라 읽기
- 2) 관심 있는 논문을 골라 읽기
- 3)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기-연구 결과가 현장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생각
- 4) 초록을 먼저 읽는다
- 5) 통계결과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다.
- 6) 비판적이지만 객관적 관점을 갖는다.

3. 논문작성규정

- 1) 시제의 일치
- 2) 3인칭 사용
- 3) 자신이 수행한 연구와 타인의 연구가 구별되도록 자신의 연구는 ‘본 연구’ 또는 ‘이 연구’라는 용어로 지칭한다.
- 4) 가능한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한다. 새로운 용어를 맨 처음 사용할 때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후부터는 이 용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한다. 예) 무용 참가, 무용참여
- 5) 간접인용시 출처 밝힐 것.
 - * 무용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홍길동, 2001; Abba, 2007; Filer & Kent, 2003).
 - * 김영미(2000)와 홍길동(2007)은 무용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4. 논문의 체제(양적 연구)

제목
 국문초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문제(가설)
 4. 용어의 정의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 측정 도구
 3. 연구 절차
 4. 자료 처리(분석방법)
 IV. 연구 결과
 V. 논의
 V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5. 서론쓰기

- 1) 연구의 학문적, 실용적 필요성(연구의 독창성)
- 2) 선행연구 고찰: 최근의 참고문헌 포함
- 3) 용어의 정의
- 4) 변인간의 관계
- 5) 연구의 목적/ 연구 문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도출

6. 연구가설 및 문제 쓰기

- 1) 개인적 특성에 따라 무용성취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개인적 특성에 따라 무용성취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3) 무용참가는 자아실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무용참가는 자아실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제 5 장. 연구 방법

1. 연구 변인

변인이란 다수의 상이한 가치를 갖는 조사대상의 상호 배타적인 특성

- 1) 독립변인: 실험자가 임의로 설정하여 조작을 가하는 변인, 즉 관계상 영향을 주는 요인
- 2) 종속변인: 실험자의 임의적 조작에 따른 결과물로 측정되는 변인, 즉 관계상 영향을 받는 요인
- 3) 배경변인: 독립과 종속에 모든 영향을 미치는 요인(성, 연령 등).
- 4) 매개변인: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을 매개하는 변수.

2. 연구 대상 표집 방법 (Sampling Techniques)

연구 대상 전체를 모집단(population)이라 부르며, 이 모집단의 특성을 모수(母數; parameter)라 하고, 모집단에서 추출된 일부를 표본(sample)이라 하며, 이 표본의 특성을 통계량(statistic)이라 부른다. 적합한 표집과정을 거쳐 전체 대학생 집단에서 표본이 추출될 경우, 표본에서 나타난 통계량은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모수와 통계량의 관계를 통계적 추정(statistical inference)이라 한다.

1) 표본의 크기(Sample Size)

무작위표집오차는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킴으로써 표집오차를 줄이거나 배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설계시 어느 정도의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는 연구자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커린저(Kerlinger, 1973, p.127)는 초보 연구자들을 위하여 가능하면 많은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표본의 수가 증가하면 비용과 시간, 노력이 많이 들어 비경제적이며 연구자체가 방대해질 위험이 있다.

- ① 표본이 추출될 모집단의 동질성(homogeneity)이 높을수록 표본의 크기가 작아도 된다.
- ② 연구 시간과 비용이 충분하면 표본의 크기를 크게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표본의 수를 줄이는 것이 합당하다.
- ③ 분석 항목수가 많은 경우는 표본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2) 표집의 종류

무작위표집이란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가 서로 독립적으로 동일한 기회만큼 표본으로 추출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표집을 확률표집(probability sampling)이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비확률표집(nonprobability sampling)이라 한다. 이러한 비확률표집은 확률표집이 곤란하거나 모집단을 규정하기 힘든 경우에 많이 이용되며 확률표집에 비해서 간편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통계적 검증에 있어 확률표집보다 신빙성이 약하다.

* 확률표집 방법

- ① 단순무작위표집(Simple Random Sampling): 표본을 추출할 때는 일반적으로 전체 단위를 대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난수표(tables of random numbers)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단순무작위표집은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모집단의 크기가 클 때나 모집단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복권추첨, 경품권 추첨).
- ② 체계적표집(Systematic Sampling): 체계적 표집은 단순무작위표집을 다소 변형한 방법으로 모집단 전체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일정한 표집간격(sampling interval)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느 학과 전체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에 표본의 크기를 30명으로 결정한다면, 매 10명 중에서 한 명이 추출된다.
- ③ 유층표집(Stratified Sampling): 모집단의 특성이 균일하지 않을 때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단을 하위집단(subgroups)으로 나눈 후 각 층(하위집단)에서 적절한 수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 ④ 집락표집(Cluster Sampling): 군집표집은 이미 군집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집단에서 일차적으로 군집을 추출하고 다시 추출된 군집에서 표집을 행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느 대학교 50개 학과 전체 학생을 대상을 조사할 경우, 50개 학과 중에서 어느 2개 학과를 선택하여 그 선택된 2개 학과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시 표집을 하게 된다. 군집표집은 조사과정이 간편하며 비용이나 시간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순무작위표집에 비하여 표집오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비확률표집 방법

- ⑤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 우연적 표집이라고도 하며, 말 그대로 표집대상에 대한 근거를 무시한 채 손쉬운 대상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경우가 그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편의표집에 의한 표본은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 조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조사에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다.
- ⑥ 의도표집(Purposive Sampling): 판단표집(judgmental sampling)이라고도 부르는데, 조사자가 사전에 모집단에 대한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대표성이 강하거나 전형적인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의도표집은 일반적으로 연구 초기단계에 연구설계의 타당성이나 조사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검사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 ⑦ 할당표집(Quota Sampling): 모집단의 특성에 따라 그 비율을 결정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예로 어느 대학교 전체 학생 중에서 인문대학에 소속한 학생이 전체의 25%일 경우, 표본의 25%를 인문대학 학생 중에서 추출하는 방법이다. 할당표집은 여러가지 속성을 근거로 하여 항목설정이 가능하다. 즉 학생들의 출신지별, 연령별, 성별 등에 따라 모집단에 대한 그 구성비를 결정하면 된다. 할당표집 역시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야기시킨다.

3. 자료수집 방법(Data Collection)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목적이나 조사내용 및 대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자료수집 방법에는 면접조사와 설문지조사, 그리고 관찰과 실험 데이터가 있다.

1) 면접조사(Interview)

면접이란 조사자가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구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직접 대면하여 구두질문을 행하는 것이다. 면접은 그 질문내용이나 순서등의 형식화 내지는 표준화 정도에 따라 형식적 면접(structured interviews), 비형식적 면접(unstructured interviews)과 반형식적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s)으로 구분되어지나 어느 형식을 채택하든 조사자는 질문할 내용이 담긴 면접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응답자의 풍부한 의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면접 사항에 대한 사전예비검사(pretest)나 면접 담당자의 사전교육이 바람직하다.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면접조사 방법으로 전화면접이 있다.

2) 관찰

관찰이란 조사자가 응답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수집 방법이다. 관찰은 오래 전부터 널리 이용되어 온 자료수집 방법이지만 과학적 관찰(scientific observation)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편견이 없는 객관성을 가져야 하며, 필요시 계량화가 가능해야 하며, 유효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

- ① 완전참여자(complete participant)로서의 역할은 조사자가 본인의 조사임무를 철저히 비밀로 하여 조사자가 조사대상자 구성원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형태이다.
- ② 관찰자로서의 참여자(participant-as-observer)의 역할은 조사자와 조사대상자가 상호임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조사자는 주로 참여자로 활동하지만 연구대상이 발생할 때는 외부인(관찰자)으로 남아 조사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③ 참여자로서의 관찰자(observer-as-participant)의 역할은 조사자의 활동이 처음부터 완전히 공개되며 주로 관찰자로 활동하기에 조사대상자로부터 상당한 협조를 받는 형태이다.
- ④ 완전관찰자(complete observer)의 역할은 조사자가 조사대상자와 완전히 분리된 상황에서 조사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필요시 효과적으로 조사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형태이다.

관찰의 장점으로는 말이나 문자로 표현하기 곤란한 행동을 직접 관찰할 수 있으며, 연구대상이나 관찰대상의 의사에 관계없이 연구가 가능하며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이다. 반면 관찰의 단점으로는 관찰된 자료를 계량화하기 곤란하며, 준비를 필요로 하는 관계로 즉각적이거나 우연적인 연구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 판단에 근거한 자료보다는 의견 제시적인 연구가 될 우려가 있으며, 관찰의 대상에 따라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3) 설문 조사(Questionnaire)

설문 조사는 연구문제에 대하여 형식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응답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배포한 후 응답을 받는 방법으로 설문조사, 우편설문조사(mail questionnaire)라고 한다.

① 설문지 조사의 장점

- 가) 간편하면서 최소의 경비와 노력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나) 응답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됨으로써 비교적 솔직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으며 또한 면접자의 편견을 제거할 수 있다.
- 다) 응답자의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응답이 가능하다.

② 설문지 조사의 단점

- 가) 응답률이 대체로 낮아 조사 자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응답율이 50% 이상이면 성공적으로 볼 수 있다.
- 나) 애매모호한 질문에 대하여 질문이 요구하는 올바른 뜻을 전달할 길이 없다.
- 다) 익명성 때문에 응답자의 솔직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응답자의 무성의 혹은 부정확한 자료가 제공될 수도 있다.

③ 설문지 작성의 일반적 절차

- 가) 연구가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가를 결정
- 나) 질문지가 포함해야 할 내용과 질문의 형태 결정
- 다) 질문지의 초안 작성과 재검토
- 라) 질문지의 사전 검사
- 마) 질문지의 수정 및 사용 절차의 구체화

④ 질문의 내용 선정시 고려 사항

- 가) 그 질문이 왜 필요하며 그것이 얼마나 유용한가 ?
- 나) 질문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할 경우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개의 질문 필요
- 다) 질문이 연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는가?
- 라) 응답자가 대답에 필요한 정보를 지니고 있는가
- 마) 응답자의 지식과 경험이 차이 있을 경우 선택 가능한 질문 준비
- 바) 공평하고 객관적인 질문: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 사) 응답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잘 말해 줄 것인가 ?

4. 측정수준과 척도(Levels of Measurement and Scales)

측정이란 관찰자에 의해서 관찰된 실제의 현상을 통계적 방법으로 그 속성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치를 부여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측정에 있어 정확성의 정도(degrees of exactness)를 나타내는 척도(scales)에 따라 주어진 특징을 여러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 척도의 유형

① 비연속 척도

- 명목척도(nominal): 가감승제나 순서의 개념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고유한 특성에 따라 분류하거나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
- 서열척도(ordinal): 어떤 대상들을 비교하기 위해 대소 관계에 따라 수치를 부여한 데이터

② 연속 척도

- 등간척도(interval): 어떤 대상들이 양적인 정도의 차이에 따라 등 간격성을 갖는 데이터, 대상간의 크기를 나타냄, 절대영점이 존재안함.
- 비율척도(ratio): 간격척도 특성에 비율계산이 가능한 속성이 부가된 척도, 절대 영점이 존재

① 명목척도(nominal) : 성별, 혈액형, 종교

* 학생의 성은? _____(1) 남자 _____(2) 여자

② 서열척도(ordinal): 대상 사물의 어떤 속성의 양을 부등호의 관계로 표시하는 척도.

예를 들어 사회계층, 교육정도, 학교석차 등은 이 척도로 표시됨

* 아버님과 어머님의 학력은? 현재 계시지 않은 분이라도 두 분 모두의 교육 정도를 다음의 보기에서 찾아 번호를 써 주십시오. 아버님 _____ 어머니 _____

- | | | |
|-------------|-------------|---------------|
| (1) 무학 | (2) 초등학교 졸업 | (3) 중학교 졸업 |
| (4) 고등학교 졸업 | (5) 대학교 졸업 | (6) 대학원 졸업 이상 |

③ 등간척도(interval): 관찰치 속성의 차이와 서열간의 차이가 동일한 척도로 관찰치들간의 거리와 정보량을 표준화한 것이다. 단순한 부등호의 조작에만 그치지 않고 대상, 대상 간 크기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a, b간의 차이(a-b)와 거기에 부여되는 실수 a, b의 차이가 언제나 동등을 유지한다고 하면 각 대상과 사상은 일직선상의 한 점으로 위치를 정할 수 있음. 5점 리커트 척도가 이에 해당됨. ex) 5점 리커트 척도, 온도

제 3부 자기 결정 동기 질문지 다음은 여러분이 무용활동에 전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 로 그렇지 않다	보 통 이 다.	다 소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내가 만약 무용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꾸지람을 들을 것이다.	(1)	(2)	(3)	(4)	(5)

④ 비율척도(ratio): 절대 영점이 주어져 있고 연속적인 수로 이루어져 있음. 등간척도와 비율척도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예를 보기로 하자. A 학생은 키가 180에 IQ 150이며, B 학생은 키가 120에 IQ는 100일때, A 학생이 B학생보다 1.5배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IQ가 1.5배 더 높다고 할 수 없다. 즉, A 학생이 B 학생보다 1.5배 더 영리하다고 할 수 없다 ex) 수입, 가격, 점수, 급여, 매출액, 무게, 나이 등

* 학생 가족의 한달 평균 수입은? 가족의 월급, 집세, 이자, 기타 잡수입을 모두 포함하여 백만원 단위로 써 주십시오. ()백만원

5. 설문지 구성방법

설문지조사에 대한 질문의 내용은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조사자가 단편적인 자료, 의견 및 태도, 각종 문제에 대한 정보 등으로 나누어 작성하여, 질문형식은 크게 선다형질문형식(選多型質問形式)인 폐쇄형질문(close-ended 혹은 structured question)과 개방형질문(open-ended question)으로 나눈다.

① 개방형 질문의 전형적인 형태는 아래의 예와 같이 하나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가 자유롭게 응답하는 방식이다.

(예) 지금까지 무용을 한 총기간은?(년 개월)

② 폐쇄형 질문은 여러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만 보기로 하자.

가) 각 항목에 대한 “정-오”(true-false), 혹은 “예-아니오”(yes-no) 형식

(예) 무용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①예 ②아니오

③ 의미의 차이에 따른 구분형태로 다수의 동의어와 반의어를 5등급 혹은 7등급으로 제시

(예) 이 무용공연장의 전반적인 수준에 대하여 답하십시오.

	매우	보통	모르겠다	보통	매우
쾌적					불쾌
친절					불친절

④ 리커트 척도(Likert scale):항목별 등급에 의한 합산평가방법

(예)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무용능력은?

- | | | | | |
|-------|-------|-----|-----|-------|
| 매우 잘함 | 약간 잘함 | 보통 | 못함 | 아주 못함 |
| (5) | (4) | (3) | (2) | (1) |

⑤ 순위결정 방법(rank order 혹은 comparative rating)

(예) 무용교육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십시오.(1이 가장 중요, 5가 가장 중요치 않음)

- | | |
|-----------|----------------|
| 창의력 개발() | 신체적, 정신적 건강() |
| 사회성 발달() | 문제해결 능력 발달() |

6. 가설에 따른 자료분석 방법

- 1) 가설에 따른 자료분석 방법은 척도에 따라 달라진다.
- 2) 가설과 척도에 따른 자료분석 방법

가설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료 처리
1. 무용전공에 따라 상해 여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불연속 척도	불연속 척도	교차분석, χ^2 검증
2. 무용 전공에 따라 무용만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불연속 척도	연속 척도	t-test, ANOVA
3. 무용참가 정도는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속 척도	연속 척도	상관분석 단순 또는 중다회귀분석
4. 생활습관에 따라 질병 여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속 척도	불연속 척도	판별분석 로지스틱 분석

제 6 장. 논의, 결론, 제언 참고문헌 쓰기

1. 논의

- 1) 결과에 대한 선행연구와의 비교
- 2) 결과에 대한 해석과 자신의 의견

2. 결론

- 1) 연구 대상과 방법,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
- 2)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예) 성에 따라 자신감은 차이가 있다./ 남자가 여자보다 자신감이 높다.

3. 제언

- 1) 자신의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추후 연구 주제에 대한 언급
- 2) 자신의 연구를 토대로 더 필요한 부분의 연구 주제에 대한 제언

4. 참고문헌 쓰기

고영복 (1984). 현대 사회심리학. 서울 : 범문사.

김영미(2000). 무용참가와 자아실현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김영미(2007). 무용수의 외모에 대한 가치 내재화와 신체이미지 왜곡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6(1), 123-134.

성춘향(2000. 1월 24일). 이도령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스포츠 신문.

양춘, 박상태, 석현호 (1990). 사회학개론. 서울 : 진성사.

Cohen, P. (1968). Modern social theory. New York : Basic Books.

Loy, J. W., Mcpherson, B. D., & Kenyon, G. S. (1978). Sport and social systems. Reading, M. A. : Addison-Wesley.

Morgan, W. J. (1985). Radical social theory of sport : A critique and a conceptual emanation. Sociology of Sport Journal, 2(1), 99-118.

* 참고문헌은 학교 양식과 학회지 양식에 따라 수정한다.

제 7 장. 설문지 제작 방법

설문지

설문지 제목

안녕하십니까?


바쁜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학생의 방과 후 무용수업이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느낀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의 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니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을 그대로 답해 주시기 바라며, 유익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성의껏 답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2월

소속 이름
지도교수명 (학위과정일 경우)

E-mail :


제 1부 학생의 개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
 제 2부 학생의 방과 후 무용수업 참가에 대한 질문
 제 3부 학생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질문

제 1부 학생의 개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

다음은 여러분의 개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 앞의 ___ 에 "V" 표시를 하거나 "O"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기에서 자신의 생각과 맞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에 그 내용을 써 주십시오.

- 1. 학생의 성은? _____(1) 남자 _____(2) 여자
- 2. 학생의 연령은? (만 세)
- 3. 학교급은? _____(1) 중학교 _____(2) 고등학교
- 4. 학생의 학년은?(학년)

제 2부 학생의 방과 후 무용수업 참가에 대한 질문

다음은 현재 학생이 참가하는 무용수업의 참가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 표시를 하거나 “O”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직접 쓰는 문항은 ()에 그 내용을 써 주십시오.

4. 수업형태는? _____(1) 기본교과 _____(2) 방과 후
5. 학생이 현재 참가하는 무용 수업의 종류는?
 (1) 한국무용 (2) 발레 (3) 현대무용
 (4) 재즈댄스 (5) 기타 ()
6. 학생은 1주일에 평균 몇 번 정도 무용특기적성 수업을 참가합니까? (번)
7. 학생은 한번 방과 후 무용 수업을 받을 때 몇 시간 정도 참가합니까? (시간 분)
8. 학생은 무용특기적성 수업의 지금까지 참가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1) 3개월 미만 (2) 3~6개월 미만 (3) 6~9개월 미만 (4) 9~12개월 미만
 (5) 1년~1년 6개월 미만 (6) 1년 6개월~2년 미만 (7) 2년 이상

제 3부 학생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질문

다음은 현재 학생의 신체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능력을 해당되는 번호에 “V” 표시를 하거나 “O”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저 그렇다	조금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1	나는 움직임이 빠른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체격이 좋은 편이다.	1	2	3	4	5
3	나는 달리기에 자신이 있다.	1	2	3	4	5
4	나는 신체에 관련된 테스트를 받을 때 자신이 있다.	1	2	3	4	5
5	내 몸에 대해 사람들이 멋있다고 한다.	1	2	3	4	5
6	나는 나 보다 몸매(체격)가 좋은 사람을 보면 부러워한다.	1	2	3	4	5
7	나는 근력이 있는 편이다.	1	2	3	4	5
8	나는 나보다 잘생긴(예쁜) 사람을 보면 부러워한다.	1	2	3	4	5
9	내 몸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고민할 때가 있다.	1	2	3	4	5
10	나는 몸이 빠르기 때문에 활동적인 운동을 잘한다.	1	2	3	4	5
11	나는 힘이 센 편이다.	1	2	3	4	5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한국무용학회 KSDS 연구역량 워크숍

■ Session 2 ■

**문질彬彬(文質彬彬):
질적 연구의 본질적 이해와 실천**

조용환 명예교수님

(서울대학교)

문질彬彬(文質彬彬): 질적 연구의 본질적 이해와 실천

조용환 명예교수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연구소 文質彬彬 대표)

■ 무용(舞踊: 춤출 舞, 댄스 踊)의 힘과 아름다움

- 대디-에반스(P. Daddy & F. Evans, 1997) 〈I'll be missing you〉
- 괴한들에게 살해당한 Notorious BIG, 그 죽음에 대한 애도
- 슬픔과 그리움, 추억과 기도의 아름답고 힘찬 승화(昇化)
- 삶과 음악과 무용의 불가분리(不可分離)

■ 무용의 문질彬彬

- 문(文)으로서 무용 vs 질(質)로서 무용
- 무용에 대한 상심과 호기심의 질적 연구: 무엇을, 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 무용의 노에마(Noema 대상)-노에시스(Noesis 의식) 상관작용
- 무용의 자유변경(自由變境)을 통한 본질직관(本質直觀)

▶ 문제의식: 질적 연구의 위기 -----

1. 잘 알지 못하면서 두루 깊이 알고 하지 않는 세태

- 1) 질적 연구의 본질 혹은 그것다음에 관심이 없는 “질적 연구자들”
 - (1) 질이 무엇인가?
 - (2) 연구가 무엇인가?
 - (3) 질적 연구가 무엇인가?
 - (4) 왜 질적 연구를 하는가?
 - (5) 어떻게 질적 연구를 할 것인가?

2) 질적 연구를 잘 안다는,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 (1) 질적 연구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없이 자기가 아는 방법에 집착하는 연구자들 특히 피상적인 면담조사로 각종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폐단 ‘3E’(Wolcott, 1992: 참여관찰, 심층면담, 현지자료 조사분석)의 방법론적 교차와 총체적 통합 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 조용환(1999, 2019)
- (2) 잘 모르면서 질적 연구를 대충 배우고 대충 논문 써서 졸업하는 석·박사 대학원생들
- (3) 그런 실상을 자탄하며 나아지려 하지 않고 감추거나 오히려 당당한 “학문 후속세대들”
- (4) 자탄 속에서 개선을 바라지만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찾지 않는 게으른 연구자들
- (5)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리를 잡고 질적 연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연구자 선생님들
- (6) 자신의 부족함은 외면한 채 남의 논문에 ‘평가의 칼’을 휘두르는 심사자 선생님들

3) 국내 학계의 질적 연구 위기 현실

- (1) 질적 연구와 질적 연구자의 양적 팽창
- (2) 질적 연구를 다루는 수업, 안내서(지침서), 강좌, 워크숍, 학회, 학술지 등의 양적 팽창
- (3) 질적 연구의 본질과 ‘질적 연구다운 질적 연구’에 대한 고뇌의 부족
- (4) 어설픈 질적 연구[자]를 모델로 삼은 어설픈 질적 연구[자]의 확대재생산
- (5) 어설픈 질적 연구[자]들로 인한 귀한 생활세계(현장)의 침식(侵蝕·浸蝕)

2. 위기의 심층 해부

1) 질적 연구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 (1)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를 보완하거나 그것을 대체하는 연구이다.
- (2) 질적 연구는 실험이나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연구이다.
- (3) 질적 연구는 느슨하고 영성한, 특히 과학적이지 않은 연구이다.
 ⇨ 라인할츠(Reinharz, 1979)가 지적하는 질적 연구의 왜곡된 이미지
 질적 연구: 부드러움, 애매모호함, 허구적임, 약함(soft, mushy, fuzzy, weak)
 양적 연구: 딱딱함, 확고함, 실재적임, 강함(hard, firm, real, strong)

2) 그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에 대한 나의 입장

- (1) 북미권 학계의 경우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대안적 접근으로 등장한 것이기는 하지만,
- (2) 근본적으로 ‘질(質)’이 수량적 비교와 측정의 ‘문(文)’이 아닌 본래적이고 존재론적(조용환, 2022a)이고 현상학적인 개념이며,

(3) 근대 학문을 정립한 데카르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니체, Big Five 현상학자(후설/하이데거/메를르-퐁티/사르트르/레비나스), 들뢰즈, 데리다 등으로 이어지는 오랜 반-과학주의적 전통 속에서 오늘날의 질적 연구가 수립된 것인지를,

(4)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의 반대말이 아니며 굳이 반대말을 찾자면 ‘문적 연구’이다.

3) 질적 연구에 대한 오해와 이해: 질적 연구의 본질에 기초하여 검토 확인해야 할 질문들

(1) 질적 연구는 일반성이 약한 연구인가?

(2) 질적 연구는 주관적이며, 그래서 객관적이지 못한 연구인가?

(3) 무정형 무질서의 질적 연구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4) 질적 연구는 노고에 비해서 그 성과가 미약하지 않은가?

(5)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적절히 혼합할 때 최선의 연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6) 질적 연구는 문학에 가까워서 학문적 가치가 약하지 않은가?

▶ 질적 연구의 본질적인 이해 -----

1. 문질빈빈(文質彬彬) -- 조용환(2004, 2011, 2012, 2021b, 2022b)

1) <논어>의 문질빈빈

(1) 출처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 (論語 雍也, 29)

(2) 의미

“질이 문을 압도하면 거칠고, 문이 질을 압도하면 틀에 갇히게 된다. 문과 질의 어우러짐, 그것이 군자의 길이다.”

(3) 질의 야성

가. 질(質): 바탕 --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 無文土器(무늬 없는 토기), 질그릇

나. 야(野):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존재태

(4) 문의 규정성

가. 문(文): 무늬 -- 명명, 분류, 범주화, 체계화, 구조화 등

⇒ 櫛文土器(빗살무늬 토기), 문화의 기원과 전개 과정

나. 사(史) -- 문자로 쓰인 문화의 자취, 즉 존재자의 역사

(5) 문질빈빈

- 가. 질(바탕)과 문(무늬)의 상호보완적, 상호작용적, 상호제시적인 관계
- 나. 구성된 존재자로서 사람과 사물과 사태에 대한, 바탕에서 무늬를 얻어내어 온 과정에 대한 질적 해체와 문적 재구성

2) 문화(文化) -- 조용환(2021a)

(1) 인간화: 길들임(domestication of the nature)

- 가. 문화는 인간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연을 길들이는 과정이며 그 소산이다.
- 나. 우리는 빛에서 색을, 소리에서 말을, 풀에서 채소를, 들개에서 집개를, 짝짓기에서 혼인을 문화(화)하였다.

(2) 방식화: 생활방식(ways of living)

- 가. 우리 인간은 무엇 하나 아무렇게 하지 않고, 독특한 방식으로 말하고 행하고 이해하고 평가하며 더불어 산다.
- 나. 문화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각 집단이 나름대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전통으로 계승해 온 삶의 방식들이다.
- 다. 모든 방식은 선택이며, 모든 선택은 배제를 전제한다.
좌측통행과 우측통행: “더 좋은 보행문화의 정착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미화: 의미의 구성과 공유(sense making & making sense)

- 가. 문화는 가족과 사회를 이루며 더불어 사는 데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즉 의미를 구성하고 공유하는 방법이다.
- 나. 이해 가능한(make-sense) 세계와 이해 안 되는(non-sense) 세계 sense(sens) = 감각 + 방향 + 의미
- 다. 의미화(signification): 기표(signifier)-기의(signified) 상관작용
≙ 중요성(significance)
의미가 다르기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다. 이를테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청소년을 성인들은 이해하지 못 할 수 있다. 언어 기능을 상실한 사람을 생매장했던 뉴기니 이왕(Iwang) 부족의 풍습을 우리 한국인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언어가 인간의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언어를 잃은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이다.

3) 질화(質化)

- (1) 질에서 문이 생성되어 온 발생적 과정을 변증법적인($A : \bar{A} \rightarrow A'$) 방식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더 본질적인 문을 찾기 위한 자유변경과 본질직관을 수행한다.
↳ 문화의 분절성: ‘일곱 색깔 무지개’와 ‘오색영롱한 무지개’

(2) 문적 접근이 존재자적인 ‘동일성의 一者 철학’에 기반을 둔다면, 질적 접근은 존재적인 ‘차이의 多者 철학’에 기반을 둔다.

(3) 데리다(Derrida, 1967; 1976)의 차연(差延, différance)

가. 구성(construction)

나. 해체(de construction)

다. 재구성(re construction)

4) 질(質)-문(文)의 유비(類比)

• 부정적 대립이 아닌 긍정적 상생의 상관작용

(1) 자연-문화

(2) 즉자-대자

(3) 존재-존재자

(4) 무한-유한

(5) 공-색: 色卽是空 空卽是色

(6) 도-명: 道可道非常道 名可名非常名

2. 자유변경을 통한 본질직관

1) 자유변경(自由邊境, free variation)

(1) 요구되는 문답

가.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사람/사물/사태) 혹은 문제가 사회, 시대, 사람, 상황 등에 따라서 어떻게 다양하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나. 기존 연구(문헌)에서 그 복잡다단한 현상들은 어떻게 개념화되고 범주화되고 있는가?

다. 현상 자체를 직관할 때 나는 그 복잡다단한 현상들을 어떻게 다시 개념화하고 새롭게 범주화할 수 있는가?

(2) 상호텍스트성: 질(質)의 무한한 가능성에 비해 문(文)은 유한한 선택

가. 존재와 그 현상은 무변광대한 가능성이다.

나. 그러므로 개방적 태도는 연구(질적, 현상학적 환원)에 필수적이다.

다. 해석학적 순환: 구성, 이해, 해석, 글쓰기는 모두 진행형이다.

라. 불확실성의 지혜, 애매성의 철학 인간의 모든 성과는 잠정적일 뿐이다. 학문적 성과도 마찬가지다.

2) 본질직관(本質直觀, essential intuition)

(1) 직관

- 가. 다른 무엇을 통해서 보지 않고 직접 바로 본다는 말이다.
- 나. 여기서 말하는 ‘다른 무엇’은 개념, 범주, 가설, 이론, 도식, 모형, 측정치, 통계치 등과 같은 매개체이다. 달리 말해서 문질빈빈의 ‘문’에 해당하는 것이다.
- 다. 직관 vs 인식
 “직관은 추리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단계적 사고가 아니라 대상을 단번에 파악함을 말한다.”(한전숙, 1998: 111)

(2) 순수직관과 판단중지

- 가. 데카르트적 판단중지(Epoché)와 순수이성
 현상학적 판단중지의 제1원리는 “어떠한 기존 학문이나 기존 진리도 전제하지 않는다는 무전제성의 원리”(한전숙, 1998: 140)이다.
- 나. 다양한 유형의 현상학적 판단중지(bracketing)와 해석학적 초월론적 이성 모든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에서 자유로운 이해의 추구
- 다. 해석학적 순환을 위한 자기분석(self analysis)으로서의 판단중지
 직관, 판단중지, 현상학적 환원 모두는 실상 변증법적이고 비판적인 대화의 과정을 요청한다.

(3) 개별직관과 본질직관

- 가. 개별직관: 개별적인 사태에 대한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직관
- 나. 본질직관: 보편자로서의 본질에 대한 직관
 “대상을 구성하는 의식 다양을 개별적으로 조각조각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초 줌(Fundierung)의 관계로 정리하는 것이다.”(한전숙, 1998: 218)
- 다. 개별직관과 본질직관은 아무런 상관없이 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라. 본질직관은 감각적 직관과 대립되는 것이다(한전숙, 1998). 무수한 개별적 대상과 현상을 현실계, 상상계, 상징계 속에서 발견하고 산출하여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속성으로서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 마. 본질직관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아래 문답들을 치열하게 부단히 반복하면서 최선/최적의 본질에 도달하고자 노력할 따름이다.
- 바. 인류학의 비교문화적 접근과 근거이론의 ‘지속적 비교(constant comparison)’도 같은 원리로 이루어진다.

(4) 본질직관에 요구되는 질문

- 가.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 혹은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것을 그것답게 만드는가?
- 나. 이 일 혹은 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주변적이고 어떤 것이 본질적인가?
- 다. 그것이 본질적임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라. 내가 파악하는 본질과 다른 사람들이 파악하는 본질은 같은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르고 왜 다른가?

(5) 후설이 말하는 본질직관의 과정

- 가. 자유변경: 자유로운 상상에 의해서 임의의 방향으로 술한 사례를 접함
- 나. 종합통일: 다양성 가운데서 겹침과 합치를 파악함
- 다. 일반포착: 변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상수(常數)적인 일반성 파악

3) 질-성질-본질

(1) 본질이란?

- 가. 어떤 무엇을 그 무엇답게 만드는 핵심적이고 근원적이고 전형적인 성질이다. 예컨대 조용환(2021b)이 말하는 ‘교육다운 교육’ 즉 ‘교육의 본질’ 같은 것이다.
- 나. 본질은 “무수히 많은 개별적인 대상들을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는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요소[성질]이다.”(이남인, 2012: 14)
- 다. 본질은 “시간을 벗어나 있으면서 시간을 견뎌낸다.”(조광제, 2004: 90)
- 라. 본질은 “선형적이고 추상적인 형식논리로 규정할 수 있는 실재가 아니다. 사람, 사물, 사태의 본질은 구체적인 경험과 체험 속에서 다양한 변형태를 무단히 관찰하고 성찰하면서 그 존재의 핵심적인 성질을 찾고 또 찾아가는 잠정적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무엇이다. 본질은 상황을 통해서 무수히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조용환, 2012: 7)
- 마. 질적 연구는 관심을 가진 무엇에 대해서 ‘자유변경을 통한 본질직관’을 추구한다.
⇒ 마로니에를 마로니에답게 만드는, 가장 전형적인 마로니에의 본질

(2) 질(質, quale)

- 가. 이름 붙여지기 이전의 존재와 그 현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선형상적 질료 같은 것이다.
- 나. 현상학에서 질료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지향성도 갖지 않는 것”(한전숙, 1998: 165)이다.
- 다. 메를로-퐁티가 보기에 ‘순수한 질’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
- 라. 불가의 자성지공(自性之空)이 말하듯, 질은 비어 있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 사르트르가 <구토>에서 직관한 순수기표로서 마로니에의 질 직관은 어떤 개념이나 사유나 표상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로캥탱이 ‘고급 백수(白手)’였기에 가능했던 직관 체험

(3) 성질(性質, qualité)

- 가. 문화, 개념화, 형상화 등의 과정에서 질에 붙여진 이름 혹은 존재자이다.
- 나. 질적 순수감과 달리 지각은 우리 몸이 순수한 '질'이 아닌 의미를 가지는 '성질'과의 만남이다.
- 다. 성리학의 습여성성(習與性成)이 말하듯, 성질은 관심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거나 밝혀 나가는 것이다.
 - ⇒ 우리가 생활세계에서 말하고 학문적으로 논하는 마로니에의 성질

▶ 질적 연구의 본질적인 실천 -----

1. 질적 연구 특유의 타당성 확보

- 1) 공감적 타당성
- 2) 대화적 타당성
- 3) 교육적 타당성
- 4) 해방적 타당성

2. 질적 연구의 구체적 접근 — 참고: 조용환(2022b)

1) 기술적(descriptive) 접근

- (1) 기술(記述)은 사물의 특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진술하는 것이다. 이를 서술 또는 묘사라 표현하기도 한다.
 - 가. 존재 자체는 이름, 개념, 범주로 있지 않다. 그냥 그렇게 있을 뿐이다. 본래의 사람이 그렇고, 본래의 사물이 그렇고, 본래의 사태가 그렇다.
 - 나. 이러한 '즉자'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이름을 붙이고 개념으로 사유하며 범주로써 분별 한다. 그것이 '대자'인 인간 현존재이다.
 - 다. 이름과 개념과 범주 없이 우리는 지각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고 사유할 수 없다. 달리 말해 존재 그 자체를 직관하지 못한다.
- (2) 존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존재 '함에서' 우리의 인식과 실천이 비롯된다.
 - 가. 그러나 연구와 학문은 무엇 자체의 '지금-여기' 표현(presentation)이 아닌, 그것의 '라고 하는' 재현(representation)에 입각해 왔다. 바로 이러한 한계를 최대한 극복 하자는 것이 질적 연구의 원리이며 태도이다.

- 나. 연구자가 감각하고 지각하는 현상들을 가감(加減) 없이 최대한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기술하는 것이 질적 연구의 접근법이다.
- 다. 있는 그대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 사물, 사태의 배경과 상황과 맥락을 함께 기술할 수밖에 없다. 존재사건을 최대한 충실히 묘사할 수밖에 없다.
- 라. 연구자가 접한 사람, 사물, 사태를 독자들도 마치 현장에서 바로 접하고 있는 듯이 기술하는 것이 질적 연구의 기술이다. 이 작업이 기어츠(Geertz, 1973)가 말하는 ‘심층적 기술(thick description)’이다.
- (3) 심층적 기술은 최대한 ‘체험 가까이(experience near)’를 유지한다. 직접적인 ‘체험에서 멀어질수록(experience far)’ 재현의 한계가 심화되기 때문이다.
- 가. 질적 연구의 기술적 접근은 종종 ‘해석과 실천의 빈곤’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해석 없이 어떻게 기술이 가능한가, 기술에 치중하여 해석을 등한시하지 않는가, 해석은 다른 연구자가 해야 하는가 등의 지적이다.
- 나. 마치 구경하듯이 바라만 보고 내버려 둘 것인가, 기술에 치중하여 실천을 도외시하지 않는가, 실천은 다른 사람에게 내맡기는가 등의 지적이다.
- 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나는 사람, 사물, 사태에 대한 깊고 탄탄한 이해가 온전한 해석의 기반이며 힘 있는 실천의 동력이라고 응대한다.
- 라.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난무하는 해석과 설명, 그에 따른 성급하고 어설픈 처방과 실천의 병폐를 너무나 많이 목도하고 있다.
- 마. 물론 질적 연구는 결코 해석이나 실천에 소홀하지 않는다. 다만 최대한 충실한 직관과 기술을 토대로 해석을 하고 실천을 하자는 입장이다.

2) 태생적(native) 접근

- (1) 질적 연구는 현장의 본래 모습과 현지인 고유의 목소리를 중시한다.
- 가. 이를 ‘내부자(혹은 당사자)의 관점으로(from the native perspective)’ 연구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 나. 현장 본래의 모습과 현지인 특유의 삶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문가’를 자처하는 외부자, ‘개혁가’를 자처하는 외부자를 질적 연구자는 경계한다. 생활세계의 현장이 그러듯이, 현지인들이 그러듯이 말이다.
- 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까뮈(Camus, 1942) 이방인의 주인공 피르소가 했던 다음 호소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사람들은 나를 빼놓은 채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참여도 시키지 않고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 나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었다. 때때로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아니 도대체 누가 피고입니까? 피고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내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2011: 110-111)

- (2) 문질빈빈의 원리 속에서 질적 연구는 ‘문’과 ‘문화’를 당연시하지 않는다.
- 가. 최대한 있는 그대로의 그냥 ‘질’과 ‘자연’을 주목한다. 질에 비추어 문을 해체함으로써 더 나은 재구성을 도모한다.
 - 나. 그 점에서 ‘native(태생성)’는 ‘nature(자연성)’와 어원을 같이한다. 아렌트(Arendt, 1958)의 ‘natality(탄생성)’와도 어근을 같이한다.
 - 다. 태생은 생태와 상통한다. 그 점에서 질적 연구의 태생적 접근은 생태적 접근과도 닿아 있다.
- (3) 인간 현존재는 제각기 그때그때 달리 실존한다.
- 가. 그러므로 노에마-노에시스 상관작용에서 ‘누구의 언제 어디서 노에시스(의식, 관점, 관심)인가’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 나.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의 세계와 지평과 상황의 차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속한 학문세계, 연구자의 의식과 관점과 관심을 간단히 ‘에틱(etic)’이라 표현한다. 그와 달리 참여자의 생활세계, 참여자의 의식과 관점과 관심을 ‘에믹(emic)’이라 표현한다.
 - 다. 질적 연구는 에믹을 중시하는 연구이다. 연구자의 에틱한 선택적 판단과 분석을 절제하거나 관리한다.
 - 라. 물론 어떤 내부자도 외부와 절연된 채 살지 않는다. 실존의 의미 자체가 ‘탈자(脫自 existence)’를 담고 있으며, 모든 주체는 항상 이미 ‘주체-타자’이다.
 - 마. 따라서 질적 연구는 에믹과 에틱의 교차 속에서 계획되고 수행된다. 다만 질적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속에서 참여자들이 어떻게 의식화(self reflection & awakening)를 하고, 문제화(problem seeking, posing, & solving)를 하는지 관찰하고 면담한다. 어떻게 주제화(thematizing & agenda setting)를 하고 변화(changing & transforming)를 하는지 관찰하고 면담한다.

3) 총체적(holistic) 접근

- (1) 질적 연구는 가능하다면 표집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지향한다.
- 가. 인류학자들이 소규모 마을이나 부족사회에 오래 머물면서 그곳의 생활세계 전반을 현 지조사했듯이 말이다.
 - 나. 그러나 연구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크고 복잡할 경우에, 다른 성격의 집단 사람들과 뒤섞여 살고 있을 경우에 전수조사는 불가능해진다.
 - 다. 교육학 분야 질적 연구의 주제와 세계와 현상은 거의 모두가 그렇다. 그리하여 질적 연구는 점차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 라. 여러 가지 준거에 입각하여 연구 현장과 참여자의 사례를 선택하되(조용환, 1999), 그 사례성을 전집 혹은 모집단에 비추어서 철저히 검토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비교 사례적, 대조문화적 접근을 전략으로 취하는 것이다.
- 마. 탄탄한 근거를 가진 ‘작지만 큰 연구’, 한 우물을 파고들어 마침내 수원(水源)에 도달하는 ‘좁아 보이지만 실상 깊은 연구’를 지향한다.
- (2) 질적 연구는 생활세계를 분절하지 않고 최대한 맥락 속에서 연관을 지으며 연구하고자 한다. 이것이 질적 연구의 총체적 접근이다.
- 가. 우리 인간의 실존은 신체와 시간과 공간과 관계를 분절적으로 다루어서는 온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다.
- 나. 그런데도 연구자의 관심사 단위로 현상을 축약하여 빈도와 상관과 인과를 분절적으로 분석적으로 다루는 양적 연구가 학문세계를 지배해 왔다.
- 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표집조사가 양적 연구의 알리바이이다. 그렇다면, 질적 연구의 알리바이는 비록 국지적이지만 그 대신 총체적이고 치밀한 선택조사라 할 수 있다.
- (3) 질적 연구자는 부분과 전체 사이의 해석학적 순환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 가. 환자는 질병 가운데서도 생활을 통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 나. 그래서 질적 연구자는 참여자의 ‘24시’를 최대한 주목하고자 한다. 참여자의 몸이 머무는 곳, 참여자가 맺는 관계 하나하나를 최대한 살펴보고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래야만 연구의 문제에 보다 적절하고 온전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 마찬가지로 질적 연구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잘 들리지 않는 것까지 유의함으로써 잘 보이는 것과 잘 들리는 것을 해체하려 한다.
- 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내 학계의 질적 연구들은 과연 그렇게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4) 체험적(lived-experience) 접근

- (1) 질적 연구는 경험의 과학이 아닌, 체험의 현상학을 지향한다.
- 가. 일상 세계에서 우리는 경험과 체험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상학과 질적 연구에서는 양자를 애써 구분한다.
- 나. 고병권(2003: 22)은 “체험(Erlebnis)은 일반적인 경험(Erfahrung)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후설(E. Husserl)이나 딜타이(W. Dilthey)에 따르면, 체험은 개개인이 스스로 자기 삶을 형성하는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체험에는 그의 변신, 다시 말해 그의 시간이 들어 있다.”고 하였다.

- 다. 현대 현상학의 토양을 이룬 독일 현상학에서 체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leben)’에 몸으로 깊이 뿌리를 내린 것이다. 그래서 주관적인 것이며, 객관화를 쉬이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 라. 그와 달리 경험은 어떤 사람이 행하든 겪으면서 ‘감(fahren)’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화를 할 수 있고, 양적으로 측정하거나 계산할 수도 있다. 경험은 체험의 내면이 아닌 외면을 다룬다.
- (2) 영어 ‘experience’에는 경험과 체험의 구분이 없다.
- 가. 그래서 북미권 현상학자들은 체험을 구분하여 말할 때 ‘lived-experience’라는 표현을 쓴다.
- 나. 여기서 ‘lived’는 과거형의 의미보다 ‘살아감’이나 ‘살아냄’을 형용하는 의미가 더 크다. 경험(經驗)과 체험(體驗)의 한자어에서 ‘험(驗)’은 공히 ‘겪는 것’을 말한다.
- 다. 그러나 체험에는 ‘몸(體)’이 붙어 있고, 경험에는 ‘길(經)’이 붙어 있다. 상당히 함축적인 구분법이다.
- 라. 나는 경험이 우리 신체와 상황의 외면적, 객관적, 수동적 만남이라 규정한다. 반면에 체험은 경험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신체가 겪는 내면적, 주관적, 능동적 변화의 과정이다.
- 마. 체험은 경험을 통해 내 안에서 느끼고 깨닫고 반성하고 거듭나는 무엇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험이 ‘세계 속에서 구성되고 설정되는 나의 정체성’ 속으로 파고들어 그것을 흔들 때 비로소 나는 그 경험을 온전하게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다.
- (3) 우리 인간은 같은 경험을 할 수는 있어도, 같은 체험을 할 수는 없다.
- 가. 질적 연구자로서 나에게 학습체험과 학습경험은 같지 않다. 체험학습과 경험학습 또한 같을 수 없다.
- 나. 모든 사람이 같은 동기, 같은 방식, 같은 과정으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체험의 내면과 경험의 성과 또한 결코 같을 수 없다.
-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량교육, 대중교육, 대의교육 제도 속에서 학습을 객관적 경험으로 표준화하여 계량하고 측정한다. 그 우열을 비교하고 평가한다. 그 상대적 성과에 따라서 학교와 사회의 지위를 배분한다.
- 라. 학문세계에서 ‘경험과학’이라는 말은 있어도, ‘체험과학’이라는 말은 없다. 관광학자들은 경험적인 ‘관광(觀光: tour & sightseeing)’과 체험적인 ‘여행(旅行: trip & travel)’을 구분한다.
- 마. 이를테면 분크스(Bunkse, 2007)는 ‘tour’의 특징을 ‘얼마나 깊이 참여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규정한다. 반면에 ‘travel’은 ‘사람들과 그들의 삶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 바. 다시 강조하건대 질적 연구는 경험의 과학이 아닌, 체험의 현상학을 지향한다.

5) 공감적(pathic) 접근

(1) 질적 연구는 합리적이거나 분석적인 의식, 판단, 선택에 앞서서 원초적인 느낌과 지각과 인상의 차원을 중시한다.

가. 우리 인간의 “감각 주체인 몸은 감각적인 대상들에 대해 이미 감응”하여 “모든 소리에 반향해서 울리고, 모든 색깔에 진동”(조광제, 2004: 296-297)하기 때문이다.

나. 느낌이 판단에, 감성이 이성에, 존재가 인식에 앞선다는 말이다. 어원상 ‘pathos’는 고통을(suffering) 느끼고(feeling) 견디는(enduring) 세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질적 연구자는 참여자의 희노애락에 동참한다. 특히 그들의 상심과 고통에 동참한다.

다. 그래야만 심층적인 래포(rapport)의 형성이 가능하다. 그래야만 참여자가 흔쾌히 자신의 세계와 마음을 연구자에게 열어준다.

(2) 하이데거(Heidegger, 1927)는 이 ‘열어 밝힘’이 진정한 존재 이해의 길이라고 하였다.

가. 이러한 감응과 공감의 접근은 달리 말해 비인지적(agnostic) 접근이다. 반 마넨(van Manen, 1990)은 인지적인(gnostic) 의사와 공감적인 간호사의 역할 보완을 논하였다.

나. 비유컨대 학문세계에서 질적 연구자는 냉철한 의사가 아닌, 온화한 간호사의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다.

다. 물론 질적 연구자가 감성에 치우쳐서 이성을 경시하거나 도외시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논리성과 합리성은 질적 연구에서도 그 근간을 이룬다.

라. 그러나 질적 연구는 학문세계의 현학적인 태도를 경계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들의 삶에 의미가 없는 연구를 학자들끼리 농단하는 폐쇄적인 태도를 거부한다.

마. 질적 연구자는 증명하는 ‘사실(fact)’보다 공감하는 ‘현사실(facticity)’을 더 주목한다. 증명하는 ‘진리(truth)’보다 공감하는 ‘진리성(truthfulness)’을 더 중시한다.

바. 그래서 질적 연구의 타당성에는 종래의 전통적 연구에서는 요구되지 않았던 ‘공감적 타당성(sym pathetic validity)’이 포함된다.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의 공감적 타당성이 발전하여, 연구논문과 그 독자 사이의 공감적 타당성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한다.

6) 해석적(interpretive) 접근

(1) 영어 ‘interpretation’은 우리말로 ‘통역’이나 ‘번역’으로 옮겨진다.

가. 이쪽 사람의 언어를 저쪽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을 때 그 사이에 통역이 필요하다. 이쪽 문화의 작품을 다른 쪽 문화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사이에 번역이 필요하다. 통역과 번역은 이질적인 두 세계 사이에 서서 서로의 이해와 소통을 돕는 일이다.

나.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에는 항상 이미 부단한 해석 작용이 있다. 연구논문과 그 독자 사이에도 그렇다.

- 다. 특히 질적 연구의 성과에 대한 논의는 해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 낱말 ‘interpretation’은 ‘사이(inter)’에 ‘섬(pret)’을 의미한다. 누가 무엇과 무엇 사이에 선 다는 말인가?
- 라. 학자들의 학문세계와 연구참여자의 생활세계 사이에 연구자가 선다는 말이다. 보편지향적인 ‘에틱(etic)’과 특수지향적인 ‘에믹(emic)’ 사이에 선다는 말이다. 이는 학문적 언어와 일상적 언어 사이의 통역 혹은 번역을 의미한다.
- 마. 질적 연구자는 자신이 속한 학문세계(대학원)를 잠시 떠나 자신의 연구현장인 생활세계(field)로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 바. 그리고는 학문세계로 되돌아와서 자신의 현지연구 성과를 논문으로 정리하여 그곳의 독자(논문심사위원)들과 공유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사. 이 두 세계에 사이에 연구자가 서게 된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생활세계 및 그 언어와, 자신이 속한 분야 학자들의 학문세계 및 그 언어 모두에 친숙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이의 통역과 번역을 최적화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질적 연구의 해석 작업이다.
- 아. 그런데 지금까지의 질적 연구에서 생활세계에서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잘 공유하지 못한 채, 학계의 언어로 덮어 써서 건강부회(牽強附會)나 곡학아세(曲學阿世)를 일삼는 연구물이 적지 않다.
- (2) 질적 연구의 해석은 설명이 아닌 이해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가. 설명(explanation)은 말 그대로 ‘ex plane(stand)’, 즉 객관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섬을 의미한다. 설명은 에틱한 접근을 취하면서, 주관적인 ‘연구자의 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 나. 그와 달리 이해(understanding)는 말 그대로 ‘under stand’, 즉 주관과 주관이 교차하며 서로의 안으로 들어섬을 의미한다. 이해는 에믹한 접근을 취하면서, 연구자와 참여자의 상호주관성에 기대를 건다.
- 다. 김고연주(2011: 266)는 원조교제를 하는 청소년을 참여관찰한 끝에 “사실 ‘이해’는 어렵지 않았다. 아이들과 마음을 조금씩 터놓으면서 아이들의 상황을 그들 삶의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 설사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언행을 아이들이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아이들을 그 삶의 맥락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의 출발점이었다.”고 하였다.
- 라. 질적 연구에서 해석은 이해와 이해 사이에서 더 나은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이며 그 산물이다.
- 마. 질적 연구의 해석적인 논의는 ‘현장 연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이야기’를 ‘현장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해하고 공감할 이야기’로 만드는 작업이다.

7) 개방적(open-ended) 접근

(1) 질적 연구에는 종결이 없다. 잠정적인 분석과 해석, 논의와 결론을 담은 ‘마디’와 ‘매듭’의 보고가 있을 뿐이다.

가. 질적 연구를 언제 어디쯤에서 마쳐야 할까를 묻는 데 대하여 전통적인 근거이론 연구자들은 ‘포화(saturation)’를 말한다. 또는 ‘고갈(exhaustiveness)’을 말한다.

나.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고, 비슷한 자료가 반복해서 등장할 때 자료 수집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다. 분석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새로운 분석을 할 수 없고, 유사한 분석이 반복될 때 분석 작업을 마치라는 것이다.

라. 그런데 정말 그런 때가 오기는 하는가? 혹시 연구자 자신이 지쳐서, 에너지가 소진해서 그런 때가 왔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연구자의 문질빈빈이 허술해서 더 이상 해체할 것도 재구성할 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마. 하지만 질적 연구를 질적 연구답게 수행해본 사람이라면 그 끝이 없음을 분명히 잘 알 것이다.

바. 들뢰즈(Deleuze, 1968)가 말하는 ‘헐벗은 반복’은 현장의 탓이 아니라 연구(자)의 탓이라고 나는 믿는다.

사. 질적 연구에 심취하여 몰입을 하다보면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이 끝없이 거듭됨을 반 드시 겪기 마련이다.

(2) 질적 연구의 개방성은 이런 문제 말고도 연구의 과정 전반에서 요청된다.

가. 이를테면 계획 단계의 질적 연구 제목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흔히 수정 보완을 요구한다. 이런 현상을 페쉬킨(Peshkin, 1985)은 ‘from title to title’이라고 표현하였다.

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변하고, 연구의 범위와 한계가 변하기는 다반사이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문제와 방법에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그다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다. 그러니 자료의 수집과 구성, 분석과 해석의 구조에 있어서 조정과 조절이 열려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글쓰기 작업도 마찬가지다.

라. 이 모두가 질적 연구의 개방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이다. 메를로-퐁티(Merleau-Ponty, 1964/2004: 270)는 “세계는 유한하지도 무한하지도 않다. 세계는 무한정이다.”라는 묘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다.

마. 그래서 나는 농담처럼 ‘질적 연구는 여건상 끝내야 할 때 일단 끝내면 된다.’고 조언한다. 일단 마무리를 하고서 차후 여력이 있을 때 더 진전된 연구를 수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바. 요컨대 질적 연구는 부단히 완성을 지향하는 과정의 작업 즉 'on-going work'이다. 질적 연구에는 여유가 필요하다. 누구에겐가 무엇엔가 쫓기듯이 해서는 좋은 질적 연구를 할 수 없다.

사. 질적 연구의 '열려 있음'에서 나는 질적 연구의 '대화적 타당성'을 도출한다.

참고문헌

- 고병권(2003), <니체의 위험한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서울: 그린비.
- 김고연주(2011), <조금 다른 아이들, 조금 다른 이야기: 십대 여성들의 성매매 경험과 치유에 관한 기록>, 서울: 이후.
- 이남인(2012), 현상학과 질적 연구방법. <현상학과 질적 연구> (2012년 한국교육인류학회·한국현상학회 공동워크숍 자료집), pp.3-24, 서울: 한국교육인류학회·한국현상학회.
- 조광제(2004), <몸의 세계, 세계의 몸: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대한 강해>, 서울: 이 학사.
- 조용환(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조용환(2004), 질적 연구와 질적 교육, <교육인류학연구> 7(2): 55-75.
- 조용환(2011), <질적 연구논문의 작성과 평가>, 서울: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조용환(2012),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1-21.
- 조용환(2019), 포스트휴머니즘과 신물질주의. 한국교육인류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질적 연구, 포스트휴먼을 만나다>, pp.3-53, 서울: 한국교육인류학회.
- 조용환(2021a), 삶의 틀을 규정하는 과정으로서 문화. 조용환 외 8인(2021), <문화와 교육>, pp.27-45,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조용환(2021b), <교육다운 교육>, 서울: 바른북스. 조용환(2022a), <다치면서 사는 법: 존재 일기>, 서울: 바른북스.
- 조용환(2022b), 질적 연구의 다양한 전통과 접근. 조용환 외 5인(2022), <질적 연구: 전통별 접근> (한국교육인류학회 방법론 총서 01), pp.13-76, 서울: 학지사.
- 한전숙(1998), <현상학> (개정판), 서울: 민음사.
- Arendt, H.(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진우·태정호 역(1996),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 Bunkse, E.(2007), *Beyond Images: The Phenomenology of Travel versus Tourism and Implications for Rural Landscapes*. In Z. Roca et al. Eds., *European Landscapes and Lifestyles: The Mediterranean and Beyond*, pp.385-395, Lisbon: Edicoes Universirarias Lusofonas.
- Camus, A.(1942). *L'Etranger*, Paris: Galimard. 김화영 역(2011), <이방인>, 서울: 민음사. Deleuze, G.(1968), *Différence et Répétitio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김상환 역(2004), <차이와 반복>, 서울: 한길사.
- Derrida, J.(1967), *L'écriture et la Différence*, Paris: Editions du Seuil. 남수인 역 (2001), <글쓰기와 차이>, 서울: 동문선.
- Derrida, J.(1976), *Of Grammatology*,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Geertz, C.(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문옥표 역 (1998), <문화의 해석>, 서울: 까치.
- Heidegger, M.(1927/1979), *Sein Und Zeit* (15th ed.),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이기상 역(1998), <존재와 시간>, 서울: 까치.
- Merleau-Ponty, M.(1945),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Paris: Editions Gallimard. 류익근 역(2002), <지각의 현상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Merleau-Ponty, M.(1964), *Le Visible et l'invisible*, Paris: Editions Gallimard. 남수인·최 의영 역(2004),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서울: 동문선.
- Peshkin, A.(1985), From Title to Title: The Evolution of Perspective in Naturalistic Inquiry. *Anthropology and Education Quarterly* 16: 214-224.
- Reinharz, S.(1979), *On Becoming a Social Scientist*, San Francisco: Jossey-Bass.
- van Manen, M.(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Canada: Th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Press. 신경림·안규남 역(1994),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서울: 동녘.
- Wolcott, H. F.(1992), Posturing in Qualitative Inquiry. In M. LeCompte, W. Millroy, and J. Preissle (Eds.),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pp.3-52, New York: Academic Press.

2023 한국무용학회 KSDS 연구역량 워크숍

인 쇄 / 2023년 5월 17일

발 행 / 2023년 5월 20일

발행처 / 한국무용학회

전화: 010-4808-3276

<http://www.kaodance.or.kr/>

제작처 / 레인보우박스

전화: 02) 2032-8800

팩스: 02) 871-0935
